

3년간 유학생 감소 추세로 유치국가 다변화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학교는 중국을 중시하면서도 유치국가 다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지회와 의학지회는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대학주보



최 동문의 집무실 곳곳에는 학교에 대한 애정과 학업 열정이 묻어났다. 책상과 벽면은 학사 일정과 수업 자료로 빼곡했고, 그가 사용하는 사소한 문구용품마저 모두 학교 로고가 새겨진 것이었다. (사진=김동희 기자)

느끼게 했다.

전자기기 사용이 필수적인 수강 방식과 복잡해진 학사 체계 탓에 고초를 겪었을 법도 하지만 그는 “참 편안하게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동문이 더욱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주변인들 덕분이었다. “학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말 친절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교 직원들은 최 동문의 재입학에 동기를 싣는 데 이어 학기 중에도 적극 도움에 나섰다.

그의 회사 직원 역시 조력자를 자처했다. 수강 신청을 거드는가 하면, 교내 직원과 통화를 하며 최 동문과 학교의 중간 다리가 됐다.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더 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재입학 도전하는 이들 많아지길**

최 동문에게 졸업 소감을 물었다. 최고령이라는 수식어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몇 번의 대면수업과 시험으로 학교를 찾았을 때, 교직원들과 학생, 교수들 덕분에 캠퍼스에서만큼은 ‘어르신’이 아닌 ‘학생’이 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슨 일로 이 강의실에 있나 싶은 반응이었다”며 농담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자리도 비켜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들도 재입학을 했다고 하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시험공부를 위해 갔던 도서관에서 “마음대로 가셔서 편안한 데 앉아서 공부하십시오”라던 직원들의 사소한 말들까지 그에게는 감사함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이어서 최 동문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많은 학우들에게 자신이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지만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 외 또 도전하고 싶은 건 없냐는 질문에 그는 명쾌하고도 솔직하게 “없다”고 답했다. 모든 항목이 ‘통과’ 처리된 졸업진단표를 내밀어 보이는 그의 얼굴엔 순수한 기쁨과 후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든의 만학도, 60년 만에 졸업가운 입다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 시면 되는데 왜 졸업장을 안 따려고 하십니까?”라는 한 마디에 여든의 만학도는 다시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지난해 9월 재입학 이후 오는 2월 졸업장을 받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이었다. 2023 학년도 전기 최고령 졸업생 최학범(정치외교학 1960) 동문의 이야기다.

**55년의 제적,
그러나 졸업은 잊은 적 없어**

최 동문의 대학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6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64년 전 스무 살 청년의 그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정치외교학과를 택했다.

당시의 학교 캠퍼스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단출한 모습이었지만 대학 청춘의 설렘과 낭만은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청운관 옆에 코

끼리장이라고 해서 학교 강의를 빠질 때 그곳에 누워서 코 골며 잠을 잔다고 그렇게 불렸죠. 그곳에 앉아서 집에서 싸 온 먹을거리도 먹고 시시덕거렸던 순수한 학생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격동의 60년대를 지나던 대학생들에게 분홍빛 대학 생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 동문은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 갖은 이유로 학업을 등지고 학교 밖으로 돌아서야 했던 학생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최 동문도 학교를 끝마치지 못한 이들 중 한 명이었다. 다만 가정형편 탓은 아니었다. 4학년을 다니던 중 지인의 권유로 전라남도 기획 감사실에 입용돼 졸업을 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 됐기 때문이었다. 당시를 회상하던 최 동문은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며 씩스러운 웃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농림부 양정국 양정과를 거친 후 농수산부 장관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어언 9년의 공무원 생활을 지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는 유

압전문 회사를 창업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분주했던 세월 속에서 학교 미등록 기간 역시 9년에서 60년으로 하염없이 쌓일 뿐이었다.

“저는 뭐든지 시작하면 끝을 내야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공무원으로 주야장천 일하던 때도, 회사 경영자로서 몸과 마음 모두 여유롭지 못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대학 졸업은 최 동문의 가슴 한편에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겨져 있었다. 뒷전에 있었던 대학 졸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비로소 학교를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여든의 나이에 접어든 후였다.

최 동문의 학생부를 살펴본 교무처와 정경대학 직원들은 “학점을 조금만 더 들으시면 문제없이 졸업할 수 있겠다”고 당부했다. 최 동문은 “나이가 드니 글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 내용도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며 재입학을 망설였다고 했다.

그런 그에게 결정적인 용기를 심어준 것은 교무처 직원의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마디였다. 그렇게 2023년 9월에 재입학한 최 동문은 55년 만에 다시 한번 대학생이 됐다.

**교내 직원부터 회사 직원까지
‘지원군’ 자처한 이들**

인터뷰를 위해 찾은 최 동문의 집무실 곳곳에는 우리학교에 대한 그의 애정과 지난 학기 부단한 노력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책상 뒤쪽에 수북이 쌓인 재입학 서류와 여섯 과목의 강의 자료들이었다. 엄청난 양의 강의 자료에 기록된 손 글씨들과 밑줄에서 만학도의 설렘과 다짐이 엿보였다. 벽에는 최 동문이 지난 학기 수강한 강의 목록과 수기로 쓴 시험 일정 메모가 붙어있었다. 철저히 연필과 종이로만 이루어진 학업의 흔적은 화려한 전자기기에 익숙해진 시대에 생경하지만 아날로그적 미학을